

로즈스나이퍼스·금호허리케인·자연환경·GN리버스 무등리그 4강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화인 야구대회

광주·전남 사화인 야구인들의 '가을잔치' 무등기 4주 차 열전이 펼쳐졌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화인 야구대회 4주 차 경기 무등중 야구장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진행됐다. 무등중 야구장에서 열린 23일 경기에서는 카멋진팀 V-KOOL과 로즈스나이퍼스, 금호 허리케인이 승자가 됐다. 광일고 마지막 16강전으로 진행된 1경기에서 카멋진팀은 타선의 집중력으로 송원블루제이스를 28-6, 4회 콜드게임승으로 제압했다. 카멋진팀은 1회초 먼저 2점을 내줬지만 1회말 대거 13점을 뽑아내며 분위기를 뒤집었다. 그리고 3회에도 대거 14득점에 성공하며 대승을 거뒀다. 카멋진팀의 윤영

훈과 이형수가 담장을 넘기며 팀 승리를 자축했다. 무등산생태오양병원의 무등기 탈환 도전은 8강에서 끝났다. 무등산생태오양병원 원은 로즈스나이퍼스와의 경기에서 7-13으로 패했다. 1-1로 맞선 3회 류승용이 솔로포를 날리며 역전극을 연출했지만 로즈스나이퍼스가 이강은의 투런으로 응수했다. 로즈스나이퍼스는 4회 홈런 포합 8점을 뽑아 4강에 안착했다. 금호허리케인은 패밀리를 8-4으로 제압하고 무등기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초반 분위기는 패밀리가 잡았다. 1회 2점을 뽑은 패밀리가 3회에도 1점을 더하며 3-1로 경기를 리드했다. 하지만 금호허리케인이 3회 3-3으로 균형을 맞춘 뒤 4회 구태호의 솔로포를 앞세워 5점을 만들며

8-4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무등기 4강 남은 두 자리는 자연환경과 GN리버스의 몫이 됐다. 자연환경은 24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무등기 8강전에서 포비스를 17-5로 꺾었다. 1회 3점씩 주고 받은 뒤 자연환경이 2회 7점을 한 번에 만들며 분위기를 끌고갔다. 그리고 12-4로 앞서 5회 최용희의 그라운드 홈런과 선주완의 스리런으로 5점으로 준결승행을 확정했다. GN 리버스도 화려한 공세로 엑터스를 18-2로 누르고 무등기 4강 팀이 됐다. 1-2로 뒤진 2회 4-2 역전에 성공한 GN리버스는 3회 지대영의 스리런으로 승기를 잡았다. 4회에도 7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GN리버스는 4회 콜드게임으로 경기를 끝냈다. 24일 3경기와 4경기는 광일고 8강전으로 진행됐다. W웨딩컨벤션과 레드위리

어스가 4강에 선착했다. W웨딩컨벤션은 0-1로 뒤진 1회말 9점을 뽑으면서 에슬레틱스에 기선을 잡았다. 이후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된 경기는 5회 1점씩 주고받은 끝에 W웨딩컨벤션의 10-2, 4회 콜드승으로 마무리됐다. 레드위리어스도 정진산업스카이와 팽팽한 힘겨투기를 한 끝에 5-3으로 승리했다. 정진산업스카이가 1회부터 3회까지 1점씩 보태며 4강행을 노렸지만, 3회 3-3으로 균형을 맞춘 레드위리어스가 6회 2점을 추가하며 4강 티켓을 가져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 광주광역시체육회·전라남도체육회 후원으로 치러지며,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함께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4주차 전적
▲23일
■1경기(광일고 16강전·4회 콜드게임)
송원블루제이스 2103 - 6
카멋진팀V-KOOL 13114X - 28
△승리투수 김기석 △홈런 윤명훈 (1회 3점)·이형수(3회2점·이상 카멋진팀)
■2경기(무등기 8강전·6회 콜드게임)
무등산생태오양병원 011230 - 7
로즈스나이퍼스 10183X - 13
△승리투수 김광호 △홈런 류승용(3회1점·무등산생태오양병원) 이강은(5회2점·로즈스나이퍼스)
■3경기(무등기 8강전·4회 시간제한)
패밀리 2011X - 4
금호허리케인 1025X - 8
△승리투수 이정현 △홈런 구태홍(4회1점·패밀리)
▲24일

■1경기(무등기 8강전·5회 콜드게임)
자연환경 37205 - 17
포비스 31010 - 5
△승리투수 박래준 △홈런 최용희(5회 2점·그라운드홈런)·선주완(5회3점·이상 자연환경)
■2경기(무등기 8강전·4회 콜드게임)
GN리버스 1377 - 18
엑터스 2000 - 2
△승리투수 조준 △홈런 지대영(3회3점·GN리버스)
■3경기(광일고 8강전·4회 콜드게임)
에슬레틱스 10001 - 2
W웨딩컨벤션 90001 - 10
△승리투수 이승훈
■4경기(광일고 8강전)
정진산업스카이 1110000 - 3
레드위리어스 003002X - 5
△승리투수 김용연

KLPGA 이정은 천하 열리나

〈순천 출신〉

OK 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18언더로 우승

시즌 4승...상금·대상·평균타수·다승 4개 부문 선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 2년차 순천출신 이정은(21)의 천하가 열릴 조짐이다. 이정은은 24일 경기도 양주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산길·숲길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OK 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8언더파 198타로 우승했다. 2위 배선우(23)를 3타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지난달 27일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우승 이후 4개 대회 만에 시즌 네 번째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은 이정은은 상금, 대상, 평균타수, 다승 등 4개 부문 선두를 질주했다. 우승 상금 1억4천만 원을 받은 이정은은 시즌 상금을 9억9천518만원으로 불러 2위 김지현(26)과 격차가 1억3천700만 원에서 2억3천800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대상 포인트에서도 2위 김해림(28)과 차

이는 163점에서 197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특히 아슬아슬하던 평균타수 선두도 다소 여유가 생겼다. 대회 2라운드에서 12언더파 60타를 쳐 14년 묵은 KLPGA투어 최소타 기록을 새로 세운 덕에 평균타수가 69.58타로 낮아졌다. 이정은은 "생각보다 빨리 4승을 달성한 데다 18홀 최소타 기록까지 세워 있을 수 없는 대회"라면서 "베스트샷을 친 다음날씩 성적이 좋지 않아 오늘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는데 그걸 이겨낸 사실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정은은 앞으로 남은 5개 대회에 한 번도 결장없이 모두 출전할 계획이다. 이정은은 "항상 우승을 목표로 뛰겠다"고 투지를 드러냈다. 세계랭킹 2위 박성현(24)은 2타밖에 줄이지 못해 공동 34위(7언더파 208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이정은이 24일 경기도 양주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협회 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 열려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과 핸드볼의 대중화를 위한 '제1회 광주시협회 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가 23일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렸다. 광주시핸드볼협회(회장 유석우)가 주관하고 대한핸드볼협회, 에스와이인베스트먼트 등이 후원한 이날 대회는 광주 지역 초·중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핸드볼클럽 30개 팀이 참가해 조별 예선리그 후 각 조 상위 2개팀이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지난 달 26일과 27일 치러진 조별 예선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중등부 6강팀과 초등부 4강팀이 겨루는 결선에서는 장덕중(남자부)과 문흥중(여자부)이

남·녀 중등부에서 우승했고 초등부에서는 효동중(남자부)과 고실초(여자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선수는 이우성(남자부·장덕중 3), 홍채리(여자부·문흥중 3), 권유규(남자부·효동중 6), 천수민(여자부·고실초 6)이 각각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은 "그동안 학업에 매진하느라 챙기지 못했던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 핸드볼이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학교스포츠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종목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

KIA 1위 독주 멈췄다...두산에 공동 1위 허용



타이거즈 최다승과 100만 관중의 여운을 살리지 못한 불안한 1위의 출전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0-5 영봉패를 당했다. 전날 최하위 kt 위즈에 8-3으로 이기며 타이거즈 역대 최다승과 100만 관중 돌파라는 겹경사를 맞았던 KIA는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하고 영봉패를 당했다. 1위 독주도 멈췄다. KIA는 이날 패배로 kt에 6-4 승리를 거둔 두산 베어스와 공동 1위가 됐다. 신종길 지명타자 카드가 실패로 돌아갔고, 불펜진의 대혼란 속에 마지막 반격의 기회도 날렸다. KIA는 이날 2군에서 콜업된 신종길을 2번 지명 타자로 해 김선빈과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다. 대신 나지완이 빠지고, 베나디나-최형우-안치홍가 클린업 트리오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범호-김민식-김호령이 배치됐지만 단 1점도 뽑지 못하고 경기 마무리됐다. 1회 김선빈이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한 뒤 신종길의 삼진과 베나디나의 좌익수 플라이 그리고 최형우의 삼진으로 득점 없이 이닝이 종료됐다. 2회 1사에서 서동욱의

신종길 카드 실패·불펜 난조...한화에 0-5 패
역대 최다승·100만 관중 달성 분위기 못 이어
안타와 이범호의 볼넷 그리고 김민식의 내야안타가 이어졌지만 김호령의 우익수 플라이 때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지 못했다. 김호령이 김선빈은 삼진으로 물러났다. 삼자범퇴로 3회가 끝난 뒤 4회 안치홍의 볼넷과 서동욱의 안타로 무사 1-2루를 만들었지만, 역시 플라이 3개로 이닝이 끝났다. 6회 안치홍이 선두타자 안타로 공격의 불씨를 살렸지만 서동욱의 희생번트로 2루까지 간 게 전부였다. 이범호의 잘 맞은 타구가 한화 2루수 오선진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갔고, 대타 최원준의 결과는 포수 파울로 끝났다. 지명타자 임무를 맡은 신종길이 4타석에서 삼진 하나 포함 침묵했고, 4번 타자 최형우는 3개의 삼진을 적립하면서 역시 무안타로 경기를 끝내면서 한화 김재영에게 시즌 5승을 선물했다.

26일 홈 최중전 팬 감사 행사



KIA 타이거즈가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2017 시즌 홈 최중전 행사에 팬 감사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올 시즌 변함없는 사랑으로 KIA를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을야구'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단 최중 홈 관중 100만명 돌파를 자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선 오후 5시 15분부터 30분 동안 팬 사인회가 열린다. 중앙출입구 인근에서

진행되는 사인회에는 베나디나, 임기영, 최원준이 참가한다. 또 이날 입장객에게는 선수들의 사진과 사인이 담긴 기념 카드(금박/홀로그램 등)를 2장씩 나눠준다. 경기 종료된 뒤에는 기념 엠블럼이 프린팅된 야구공 100개를 관중석에 선물한다. KIA는 이날 입장 관중을 대상으로 현장 추첨을 통해 기자회견 소형 SUV 스토닉(STONIC)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지난 7월 출시된 도심형 콤팩트 SUV인 스토닉은 뛰어난 성능과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2030 젊은 세대에 사랑받으며, 소형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선수단은 100만 관중 돌파를 기념

0-1로 뒤진 9회 마지막 추격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팻단이 8회까지 1실점으로 묶어주면서 9회 불펜이 가동됐다. 첫 주자는 임창용이었다. 19·20일 SK전에 이어 전날 kt전 1.2이닝까지 모두 5이닝을 소화했던 임창용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연속 안타를 맞고 강판됐다. 이어 나온 좌완 심동섭도 2타점 2루타를 맞은 뒤 땅볼로 원아웃을 채우고 강판됐다. 이번에는 김세현이 나왔지만 투런포를 맞자 바로 또 불펜이 이민우로 교체됐다. 급히 마운드에 오른 이민우가 좌전 안타 이후 플라이로 남은 아웃카운트를 채웠지만 이미 점수는 0-5까지 벌어졌다. 타선의 침묵 속에 선발로 나선 팻단은 8이닝 7피안타 1사자구 3탈삼진 1실점의 호투에도 패전투수가 되면서 또 불운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하는 특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선다. 특별 유니폼 상의는 감색(네이비) 바탕에 호피 무늬 패턴이 수놓아져 호랑이의 강인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유니폼 전면에는 100만 관중 기념 엠블럼이 들어간다. 구단의 미래가 될 2018년 신인 선수들도 팬들에게 첫인사를 한다. KIA는 이날 신인 선수들과 부모를 초청해 시구·시포 행사를 연다. 2018년 신인 부모들이 시구자로 나서고, 신인 선수들은 시포자로 나서 부모님의 공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경기 끝난 뒤 선수단 전체가 그라운드로 나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다. 김기태 감독과 주장 김주찬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복귀 앞둔 이명기 "우승 기념사진 찍어야죠" 레전드 이종범 "마무리 잘해서 우승까지..."

덕아웃 T 톡톡

▲첫 승보다 기쁨
부모님 앞에서 환하게 웃은 '징크스왕' 임기영이다. 임기영은 23일 kt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6이닝 6피안타(1피홈런) 5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3-3으로 맞선 6회 등판을 마무리했지만, 6회말 김선빈의 투런이 터지면서 임기영은 8-3 경기의 승리투수가 될 수 있었다. 임기영은 "평소보다 더 기쁘다. 부모님이 경기장에 오셨는데 승리를 했다. 첫 승을 했을 때보다 좋다"고 웃었다. 부모님이 경기장을 찾는 날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던 임기영은 징크스를 깨고 6월 7일 한화전 완봉승 이후 108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이 승리로 임기영의 시즌 8승이 기록됐고, 타이거즈의 역대 최다승이었던 81승을 넘어서는 새로운 팀 최다승 기록이 작성됐다. ▲우승 기념사진 찍어야죠
복귀를 앞둔 이명기가 챔피언스필드에 등장했다. 이명기는 한화와의 경기에서 열린 24일 1군 선수단과 함께 훈련했다. 지난 4일 넥센 원정경기에서 원발목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진 이명기는 지난 22일과 23일 한화와의 2군 연습경기에서 실전을 소화했다. 이날 2군 연습경기

일정이 없자 이명기는 1군 선수단과 훈련을 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이명기는 "열성팬의 입장으로 팀 경기를 봤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마지막에 같이 우승 사진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웃음). 몇 경기 안 남았는데 팀이 이기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잘 준비해서 오겠다"고 밝혔다. 이명기는 26일 서산에서 열리는 한화 2군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복귀를 위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무리 잘해서 우승까지
타이거즈의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본 타이거즈 레전드의 덕담은 "마무리 잘해서 우승까지"였다. KIA는 23일 kt와의 경기에서 8-3 승리를 거두면서 타이거즈 역대 최다승 기록을 82승으로 갈아치웠다. 또 이날 1만2056명이 입장하면서, 누적 관중 100만346명으로 타이거즈 역사상 첫 100만 관중기록도 썼다.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으로 경기장을 찾은 '타이거즈 레전드' 이종범은 "KIA가 좋은 성적을 내주면서 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100만 관중을 이룰 수 있었다. 최다승도 축하하고 많은 의미가 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마무리 잘해서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